

4월 이상 저온에...농민들 '발 동동'

보성 참두릅·나주 배·멜론 등 냉해로 생육 차질·품질 저하 당분간 평년 기온보다 2~6도 낮을 듯...15일까지 눈·비도

전남 지역 농민들이 이상기후로 농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평년보다 2~6도 낮은 이상 저온이 3월 말부터 지속되면서 농작물 생육이 차질을 빚고 있고, 일부 작물은 수확에 어려움을 겪거나 품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배 재배농가에서는 이미 배추가 피기 전 한차례 냉해를 입은 상황에서 추위가 또다시 찾아오면서 걱정이 두배가 됐다.

나주시 금천면에서 20년째 배농사를 짓고 있는 김준(52)씨는 최근 과수원의 절반에 가까운 배추가 냉해를 입었다. 인편(꽃봉오리 곱질)이 벌어진 시점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꽃이 피기도 전에 씨방이 쉽게 괴사된 것이다.

김씨는 "정상적인 꽃눈은 8개 정도의 꽃망울을 띄우는데, 꽃눈 하나당 3~4개씩만 살아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특품'이 맺힐 가능성이 큰 곳(한꽃눈에서 피는 여러 개 꽃 중 일찍 핀 꽃)들이 모두 죽어버려 상품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걱정했다.

김씨는 "지난 8일부터 나흘에 걸쳐 수분작업을 진행하는 등 작업량을 평소 대비 두 배로 늘렸지

만, 착과율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무리 농사의 8할은 하늘이 짓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해에도 다 키워놓은 배를 '일소(햇볕데임)' 피해로 완전히 망쳐버렸는데 올해는 아예 농사 시작도 전에 저온 피해가 오니 겁갑다"고 말했다.

영암군에서 20년째 배농사를 이어온 나상수(68)씨도 비슷한 처지다. 나씨는 "저지대 쪽은 더 피해가 컸다. 수분 작업까지 다 해봤지만 계속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니 착과율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씨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보상은 실제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몇 년 전에도 저온으로 비슷한 피해를 봤는데, 날씨만 보고 1년 농사 다 맡기는 현실이 서글플 뿐이다"며 "지금은 나무마다 영양제를 놓으면서 최대한 버텨주도록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명수(민주·나주 2) 전남도의원도 "배 수분 작업을 한 농가들이 많은데 최근 갑자기 낮아진 기온으로 착과율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배 농가가 많다"며 전남도 등에 실태조사를 주문할 계획이다.

나주시 세지면에서 37년 넘게 멜론을 재배하고

있는 안숙자(여·69)씨는 유리창에 낀 서리를 보고 "봄이 맞나 싶을 만큼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농민 입장에서 속수무책"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안씨는 "춥고 흐린 날씨에 햇빛마저 들지 않으면 작물에 일조량이 부족해지는데, 그러면 멜론이 햇빛을 못 받으면서 특유의 '그물 무늬'가 안 생기고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며 "하우스 농사를 지어도 날씨에 민감한 것은 마찬가지다. 따뜻하긴 하면 된 것 같아도 일조량이 없으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못 하니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고 혀를 찼다.

보성군에서는 지난달 말 밤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참두릅농가 50여곳이 피해를 봤다.

참두릅은 수확 시기가 빠르고, 생육 초기 저온에 민감한 작물인데 저온으로 두릅 손이 열게 되면서 출하를 못하게 된 것이다.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도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이상기온(2월 고온·4월 저온) 등의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다.

전남도는 2018~2024년 간 저온 피해로 입은 농작물 피해만 4만 3529ha에 달했다.

4월 기준으로도 최근 4년 간 전남에서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면적은 3209ha(2021년), 7127ha(2023년) 등이다.

올해도 비슷해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나주시 금천면의 한 배 농장에서 농민들이 새로 나온 가지들을 끈으로 묶어 주는 '유인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8일 보성지역 최저기온은 5.8도였다가 사흘뒤인 31일 영하 2.9도로 8.7도가 떨어졌다.

당분간 이상저온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4~9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 수준으로 평년(최저 4~10

도, 최고 16~21도)보다 2~6도 가량 낮다. 15일 아침에는 최저 2~7도, 낮 최고 13~17도로 예상된다.

14일 새벽에는 일부 지역에 비 또는 눈 예보도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세월호 11주기...광주·전남 곳곳 추모행사

5·18민주광장 시민분향소 마련 기억문화제·목포 선상추모식 등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린다.

세월호광주시민상추모모임은 지난 12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합동분향소를 열었다.

분향소에서는 오는 16일 오후 8시까지 헌화와 분향을 하거나 노란 리본에 추모의 글귀를 적을 수 있다.

오는 16일 오후 4시 16분에는 분향소 일대에서 광주 예술인 행동장이 열리며,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주 기억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각 자치구별로도 '기억문화제'를 연다.

'남구 푸른길 촛불모임'은 오는 15일 오후 5시부터 광주시 남구 백운동 양우내안에 앞 생명안전기억공원(가칭)에서 추모 행사를 연다. 남구민 추모 공간은 15일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두 차례에 나눠 열린다.

'서구 품안 촛불모임'은 15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신암근린공원에서 기억문화제를, '북구 마을 촛불모임'은 16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북구정앞 광장에서 추모 행사를 연다.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선상 추모식이 열린다. 목포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세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13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차려진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월호 침몰 해역과 가까운 섬인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에 도착해 해역에 국화를 던지며 250명 이름 부르기를, 추모사, 참사해역을 선포하며 희생자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추모식 이후에는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신항을 찾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목포 기억식'이 개최된다. 기

역사 낭독, 추모 공연, 시 낭송, 헌화, '세월호 치유'의 춤 순으로 진행되는 행사에는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소속 유가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월호참사11주기광양추모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4시 광양시 서천면 읍약분수대 앞에서 추모제를 연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대선 공약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6·3 대선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소속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116명을 대상으로 내부 투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투표는 직장갑질119가 1년간 받은 제보 내

용을 바탕으로 만든 공약 21개 중 최대 5개에 복수 응답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5인 미만, 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69%를 얻어 1위를 기록했고,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이 50.9%로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이진아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 밖의 노동'으로 밀려나 있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이 대선 공약으로 적극 제시되고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해 로스쿨 입학생 2명 중 1명 'SKY' 출신

지방 대학 출신 4.8% 그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생 중 절반 이상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2곳의 합격자 1850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총 1024명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서울대 출신이 413명(22.3%)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는 319명(17.2%), 연세대는 292명(15.8%)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은 1553명으로 전체의

83.4%에 달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이어 성균관대 127명(6.9%), 이화여대 79명(4.3%), 한양대 67명(3.6%), 중앙대 51명(2.8%), 서강대 47명(2.5%), 경희대 41명(2.2%) 순이었다.

상위 10개 출신 대학 가운데 비서울 소재 대학은 경찰대(81명·4.4%)가 유일했다.

지방 소재 대학 출신 합격자는 총 88명(4.8%)에 그쳤다.

자교 출신 로스쿨 합격 비율이 높은 곳 역시 서울대였다.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중 66.7%는 서울대 졸업생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